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	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 **가 정 통 신 문** 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	제 2021 - 96 호 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

제목 : **2021년 제575돌 「한글날」 계기 교육 자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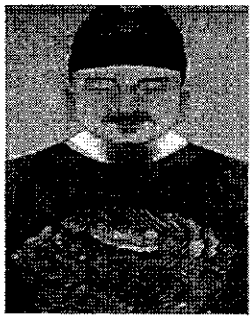
1. 「한글날」 정의 : **훈민정음(訓民正音)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이 그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세종어제(世宗御製) 서문(序文)과 한글의 제작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訓民正音)』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록되었다.

2. 「한글」 우수성 :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25년 곧 서기 1443년에 완성하여 3년 동안의 시험 기간을 거쳐 세종 28년인 서기 1446년에 세상에 반포되었다. 한글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만든 문자인데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세계 문자 역사상 그 짝을 찾을 수가 없다.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또 없다는 것을 세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글의 창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자가 없어서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을 중국말 문법에 맞추어 쓰던 불편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발전을 이루어 세계 유수한 나라들과 어깨를 겨루게 되었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이다.

3. 「한글날」 제정 : 한글날을 처음 제정한 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던 1926년의 일이다.
조선어연구회(朝鮮語硏究會) 곧 오늘의 한글학회가 음력 9월 29일(양력으로 11월 4일)을 **가갸날**이라 하고, 그날 서울 식도원(食道園)에서 처음으로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 시초이다. 이 해는 한글이 반포된 지 8회갑인 480년이 되던 해였다.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꾼 해는 1928년이었다. **1931년에는 그동안 음력으로 기념해오던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치기로 하고 율리우스력으로 환산하여 10월 29일을 한글날로 정했다.**
한글날을 양력 10월 9일로 확정한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였다. 곧 **'정통 11년 9월 상한'**의 '9월 상한'을 9월 상순의 끝날인 음력 9월 10일로 잡고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1946년에는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거국적인 기념 행사를 하였다.

4. 진행 :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되었다.
한글날은 한동안 법정공휴일의 지위를 잃는 불운을 겪기도 하였다. 1990년에 휴일이 많은 것은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경제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어 법정공휴일 축소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해 8월에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더불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되었다. 그러나 한글 관련 단체의 꾸준한 한글날 국경일 제정 운동의 결과로 2005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정해졌다.

5. 현재 : 한글이 오늘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 글자로 자리를 잡기 전,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끄러울 정도로 문맹률이 극히 높았다. 한자 또는 한문은 배우기가 어려워서 보편화되지 못했고, 한글은 배우기가 쉬웠으나 한글을 아는 것으로는 밖에 나가 행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르치지를 않아서 아는 사람이 적었던 까닭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여 한글의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며, 그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다.**



2021. 10. 08.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장